"하수처리장 악취 고통"… 첫 소송 '주목'

제주시 도두동 주민 2명 제주도 상대 손해배상청구
지자체 상대 하수처리 첫 소송… 도 "변호사와 상의"
악취 발생과정 도 잘못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될 듯

제주지역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 등 주민 2명은 지난달 23일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A씨 등은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펜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도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는 펜션은 제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다.

도내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다만 20년 전 경남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마산시 주민 1100여명이 하수처리장 악취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마산시가 이들에게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수처리장 악취로 고통 받은 주민들이 지자체 배상을 이끌어 낸 첫 사례였다.

당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 배상을 결정한 이유는 하수처리장 슬러지(침전물) 체류 시간이 설계치와 권장치를 크게 웃돌고, 하수처리장 인근에서 측정한 암모니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마산시의 하수처리장 운영에 잘못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도 제주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과정에서 제주도의 잘못이 있었는지와 잘못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탈취(냄새 제거) 장비를 갖춘 제주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에서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각각 한 차례씩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가 측정됐다. 연구원 측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대기를 측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법원이 제주도가 하수처리장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지금껏 도내 공공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하수 대란'을 겪은 제주도는 뒤늦게 2018년 제주하수처리장 악취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했지만, 연구를 맡겠다는 기관·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무산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에서 각각 16차례씩 악취를 측정했는데 2차례만 기준치를 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었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한편 도내 8개 공공 하수처리장 중 제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서부·대정·남원하수처리장은 시설 용량보다 많은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만 3곳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배출수를 100일 이상 바다로 방류했다. 이상민기자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 회원 50여명은 13일 서귀포시 대정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마늘 생산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마늘 수매가격·수매물량 확대하라"

제주마늘생산자협회 회견

(사)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13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농협 자재창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마늘 생산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늘생산자협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했으며 회견후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마늘생산자협회 박태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마늘 생산자들은 마늘 한쪽이라도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웠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것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돼 가격이 하락되니 산지 면적 조절로 키운 마늘을 갈아엎으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정 역시 마늘 산업은 제주 전체 농업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방관했다"며 "향후 월동채소 등 농업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정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수매와 농협수매의 동시 시행 ▷제주도의 농협 비계약 물량에 대한 별도 수매 대책 마련 ▷생산비 보장 ▷제주 농업을 지킬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15일에 마늘 수매 단가가 결정된다. 생산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kg당 2800원 정도는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매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면 수매 물량이라도 늘려달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대규모 개발사업 때 교육상황도 고려하라"

교육청, 도에 개선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개선을 요청했다.

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교육분야 검토과제' 2건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27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먼저 '학교 신설 계획 부실'이 있다. 이 의견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제주의 교육상황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주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집앞 도로 자기것처럼… '몰염치' 팽배

불법적치물 등 쌓아놓고
"여긴 내 공간" 무단 사용
단속 걸리면 "내것 아니"
철거-무단설치 숨바꼭질
제주시 월평균 800건 단속

상가나 집앞 도로, 인도를 불법 점유한 물통이나 화분, 불법 좌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이 단속을 벌이지만 단속 후 다시 무단 점유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단속된 불법 노상 적치물은 3212건으로, 월평균 800건 꼴이다. 연간 단속건수는 2017년 4423건, 2018년 6489건, 2019년 2만8159건으로 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3년 동안 15건에 그치고, 대부분 계도하면서 적치물은 수거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도로 위에 화분,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을 내놓거나 좌판을 벌여 도로 이용과 차량통행에 제약을 준다는 주민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시 단속반 외에 별도로 민간용역까지 동원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중이다. 민간용역반은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단속건수의 40.8%(1311건)는 민간용역이 단속한 것으로, 올해 확보한 예산 8600만원은 오는 8월쯤 소진이 예상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시가 상가 앞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한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 후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 관계자는 "이면도로 주차공간을 선점하거나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불법 점유물은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화재로 갓난아기 숨지고 엄마 크게 다쳐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갓난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

1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제주시 이호2동 소재 한 4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50여분만에 진압됐다.

소방대원들이 집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생후 3개월 된 남자 영아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또 아이 어머니인 A(40)씨가 팔, 다리를 다치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층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주택 2층 내부가 모두 불에 타고 건물 일부가 불에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60대 부부 탄 차량 가로수 충돌로 아내 숨져

60대 부부가 탄 승용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다쳤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56분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도로에서 A(66)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66)씨가 숨지고 남편 A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윈치용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 림 종 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